

교육개발원 ‘체육·예술교과 평가방법 개선방안 연구’의 허구성(虛構性) 비판 - 음악 교과교육학적 관점에서 -

최 은 식*

차 례

I. 서 론

II. 본 론

1. 음악학습과 음악평가
 - 1) 음악학습
 - 2) 음악평가
2. 교육부 용역 교육개발원 연구결과의 허구와 문제점
 - 1) 연구진 구성의 문제점
 - 2) 연구필요성 및 목적의 문제점
 - 3) 연구방법
 - 4) 음악평가 기록방식 개선안의 문제점
 - 5) 개발원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문제점

III. 결 론

* 건국대학교

I. 서 론

지난 6월 13일 교육부는 ‘체육·예술 교육 내실화 방안’(이하 체육·예술 내실화)을 발표하였다. 느닷없이 발표된 교육부의 방안은 첫째, 학교 체육과 예술교육의 환경개선을 위한 재정투자, 둘째, 체육·예술 평가 기록방식의 변경, 셋째, 고등학교 체육·예술 관련교과 선택과목군 증대라고 하는 세 가지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번 정책은 외견상 학교의 체육·예술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정책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참여정부를 표방하는 노무현 정부가 지난 2003년에 사교육비 경감대책이라는 미명하에 체육·예술 교과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가 실패하였던 정책을 교묘한 방식으로 재포장한 것이 불과하다.

교육부 이번 정책이 학교 체육·예술 교과의 내실화라는 미명하에 ‘학교 체육·예술 교과의 내신무력화’의 저의(底意)를 담고 있다는 것은 다음의 몇 가지 사실만 생각해 보아도 분명해진다.

첫째, 교육부는 학교 체육·예술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범여권이든 야권이든 관계없이 정권이 바뀌는 시점에서 향후 1,000억 원이라는 큰 예산이 학교 체육·예술 교육을 위해 계속적으로 투입될 것인가를 장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예산이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한 개 학교가 일 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은 61만원 정도에 불과하다($1,000\text{억 원} \div 2006\text{년도 기준 전국 초중등학교 } 10,876\text{개} \div 5\text{년} \div 3\text{개과목} = \text{약 } 61\text{만원}$). 음미해 한 과목당 연간 61만원을 지원받는 것도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지는 하지만, 한 학기당 약 30만원 정도의 지원을 통해서 학교의 체육·예술 교육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처럼 홍보하는 것도 매우 비현실적인 것이다.

둘째,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에서의 예술체육 과목군의 분리를 통해 예술체육과목 선택의 기회를 확장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이미 지난 2월 부분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또한 이번 정책에 대한 비난여론을 완화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셋째, 교육부는 이번 정책의 가장 핵심인 평가기록 방식에 있어서 5등급 절대평가(중학교)나 9등급 상대평가(고등학교)를 일률적으로 3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필요에 따라 내신에 적용할 수도 있다고 하였으나, 전교 석차나 표준편차의 기록을 폐지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교묘하게 내신교과로서의 기능을 상실시키려는 저의를 감추고 있다.

넷째, 교육부의 이번 정책은 공교육 파행의 근본원인이 대학입시에 있다는 사실을 자신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신을 약화시키거나 무력화시키면 학생들이 내신(또는 입시) 부담에서 벗어나 체육예술교과를 본질에 맞게 인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체육예술교과가 내실화될 수 있다는 극히 비현실적인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미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대입준비학원화 된 한국의 공교육 현실을 무시한 채 학교의 상황을 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전제하고, 그러한 비현실적 가정을 전제로 수립된 '예술체육교과 내신 무력화 정책'은 학교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 의해 탁상에서 이루어졌거나, 그렇지 않다면 정권의 불합리한 정치적 지시를 교육적 배려도 없이 무조건 집행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국가의 백년의 미래는 현재의 교육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정책에 있어서만은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여러모로 볼 때, 이번 체육예술교육 정책은 집권 이후 계속되는 교육실정으로 그 이전 어떤 정권에서보다 많은 교육부 장관을 물러나게 했던 참여정부가 정권의 말기에 사교육의 폐해에 대한 본질적 해결책보다는 교육현장에서 입시관련성이 없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중심부에서 소외되고 있는 과목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국민에게 심리적 카타르시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이반될 대로 이반된 민심을 조금이라도 돌려보려고 하는 안타까운 무리수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교육부는 교육개발원에 의뢰한 연구결과를 이번 정책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개발원의 연구는 관련과목 전문가의 참여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결론을 미리 결정한 채 정해진 정책발표 기한에 맞추어 약 3개월

이라는 초단기간에 이루어진 연구로서, 학문적 타당성이나 연구의 신뢰성을 거의 갖추지 못한 '정치적 목적의 연구'이다.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체육이나 예술교과의 성격이나 본질에 대한 학문적 토대가 없는 비전문가 집단인 정권, 교육부, 개발원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체육과 예술교과의 성격과 본질을 왜곡시켜 정의하고, 왜곡된 교과의 본질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정상적인 학교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였을 뿐 아니라, 입안된 정책에 대한 극히 형식적인 의견수렴과정만을 거쳐 졸속으로 시행하려는데 기인한다.

따라서 본고의 목적은 우선, 음악학습과 음악학습 평가의 본질을 교과전문가의 입장에서 제시하고, 둘째, 이를 근거로 교육개발원의 연구를 비판함으로써 개발원 연구의 비합리성과 정치성을 밝힐 것이며, 최종적으로 현재의 학교 좁게는 음악교육의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안을 교과교육학적인 관점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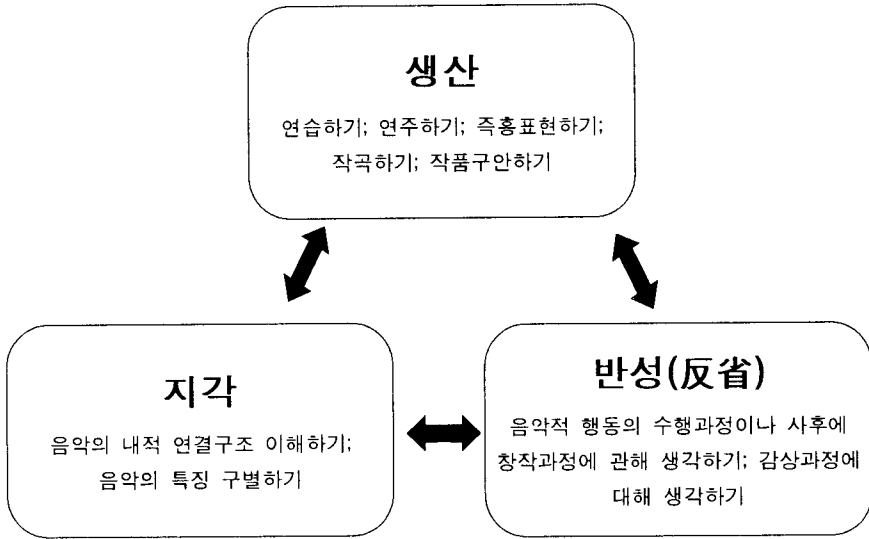
Ⅱ. 본 론

1. 음악학습과 음악평가

1) 음악학습

(1) 가드너의 이론

현대 인지심리학 이론에 큰 영향을 끼쳐온 하버드대학의 가드너(Gardner, 1992)는 미국국립평가원(Educational Testing Service)와 음악교과교육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수행한 일련의 연구를 통하여 음악학습이 생산(generate music), 타당한 기준에 근거한 감상(listen discerningly),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think critically)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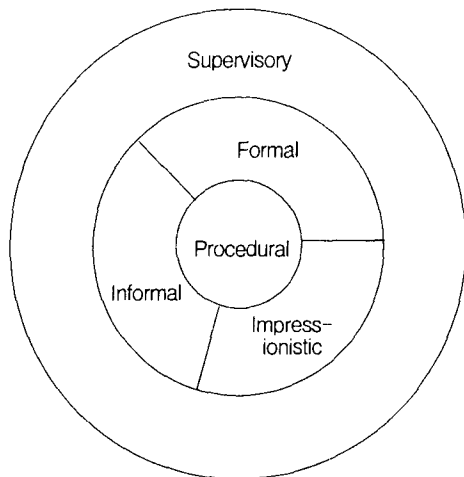
<그림 1> 가드너의 음악학습 영역

가드너의 음악인지이론은 음악학습이 매우 고도로 종합적인 사고과정 통해 이루어지며, 음악학습의 모든 영역에 인지적 능력이 깊숙하게 개입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2) 엘리엇의 이론

음악교육학자인 엘리엇(Elliott)은 음악학습의 영역을 과정적(procedural musical experience), 형식적 지식(formal musical knowledge), 비형식적 지식(informal musical knowledge), 인상적 지식(impressional musical knowledge) 와 통제적 지식(supervisory musical knowledge)의 다섯 영역으로 나누었다.

<그림 2>



<그림 2> 엘리엇의 음악학습 영역

과정적 지식은 음악적 수행(musical performance)의 과정에 필요한 일련의 지식과 기능이 통합된 상태의 지식을 의미하며 수행의 과정에 연속적으로 드러난다. 즉, 행위로 이루어진 지식(knowledge in action)을 의미한다. 형식적 지식은 언어적으로 표상되는 명제적 지식을 의미하며, 비형식적 지식은 명제적으로 드러날 수 없는 음악에 관한 비언어적 지식을 의미한다. 아름다운 악기소리를 내는 방법을 (언어적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체득한 지식은 비형식적 지식의 예이다. 인상적 지식은 직관적 지식으로서 음악행위를 할 때 일어나는 느낌이나 감정을 수반하는 지식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통제적 지식은 자신의 수행과정 자체를 관찰하고 통제하는 일종의 상위인지(meta-cognition)를 의미한다.

엘리엇의 음악학습 영역을 블룸의 일반적 학습영역에 대입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블룸과 엘리엇의 학습영역 비교

블룸의 학습영역	엘리엇의 음악학습 영역	
인지적 영역	형식적 지식	비형식적 지식 통제적 지식
심동적 영역	과정적 지식	
정의적 영역	인상적 지식	

2) 음악평가

음악학습의 평가는 엘리엇의 분류에 따라 이루어질 수도 있고, 블룸의 분류에 따라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음악교과는 다른 교과에 비하여 심동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음악학습의 영역가운데 형식적 지식, 과정적 지식의 평가는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인상적 지식, 비형식적 지식 및 통제적 지식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음악학습의 평가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인상적 지식, 비형식적 지식, 및 통제적 지식을 타당하고 신뢰성 있게 평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각종 콩쿨이나 음악경연대회에서 상시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이런 종류의 음악적 지식이며, 일반적으로 그 결과의 타당성이나 신뢰성에 의의를 제기하지는 않는다. 즉, 단순 인지적 지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음악평가에 있어 상당한 수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공교육에서 예술과목의 평가의 신뢰도가 낮다고 하는 일반적인 의견은 예술과목이 정서를 위주로 하기 때문이 아니라 평가자가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비록 음악이나 과목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과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필고사 형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식은 매우 단순한 수준의 학습내용이 대부분이며, 모든 교과에서 종합적이고 고차원의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1) 음악평가의 방법

■ 음악검사의 종류

음악검사를 위해서는 음악적 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음악검사의 방법은 객관식 검사(objective test), 실음-지필검사(sounds-based objective test), 연주(실기)검사(performance test), 서술검사(descriptive/subjective test), 구술검사(verbal test), 및 기보검사(notation test)가 있다.

객관식 검사는 실제 음의 사용 없이 학습자의 음악적 지식을 평가할 때 사용한다. 선다형(multiple, 단답형, 완결형, 진위형, 및 배합형 등의 객관식 검사유형이 음악평가에 사용될 수 있다.

실음지필검사는 시험지 상에 학습자의 응답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객관식 검사와 유사하나 검사의 문항들이 실제 음악(또는 소리)와 연계되어 제시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음악교과의 본질이 물리적 현상으로서의 소리에 근거하기 때문에 실음지필검사는 보다 음악교과의 성격에 부합하는 검사라고 할 수 있다.

실기검사는 음악교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검사 가운데 하나이다. 평가자는 학습자의 노래(가창), 악기연주(기악), 신체표현의 수준(성취기준)을 미리 설정하고 그 기준에 의해 학습자의 연주행위를 평가한다.

서술검사는 주관식 검사로도 불리며 학습자는 음악과 관련된 지식이나 생각을 글의 형태로 서술한다. 평가자에 의해 응답의 형태가 미리 결정되는 객관식 검사에 비하여 학습자의 다양한 차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채점이나 등급화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학습자의 음악적 지식보다 문장의 유려함이나 문법 등 비 음악적인 요인이 평가의 결과에 영향을 줄 위험이 큰 검사이다.

구술검사는 학습자가 평가자와 대면하여 자신의 지식이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검사방법이다. 개별 학습자의 특성이나 수준을 고려한 평가가 가능하지만 시간과 비용, 객관성이 결여되기 쉬운 단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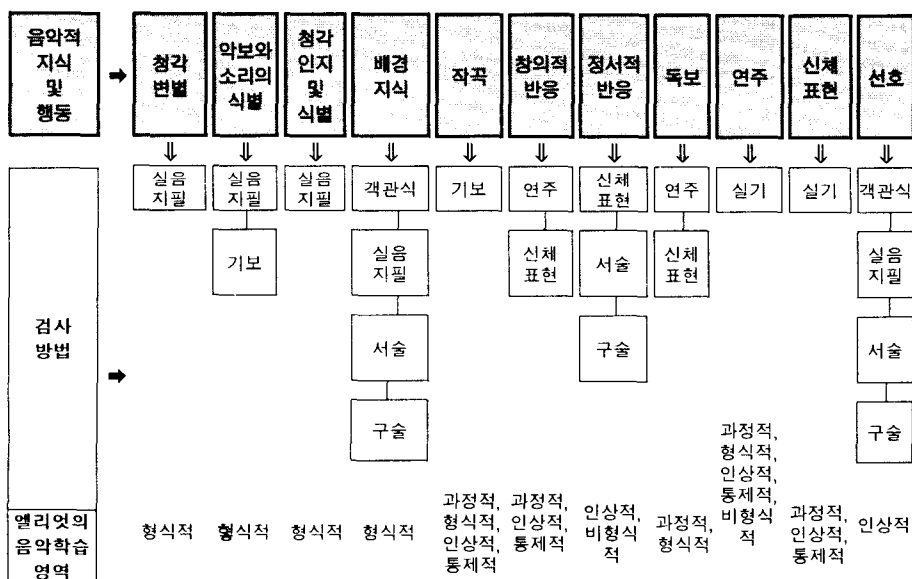
기보검사는 음악교과의 특성을 반영한 고유한 검사방법으로서 학습자는 음악과 관련된 자신의 지식을 악보의 형태로 표현한다. 청음(dictation)검사가 대표적인 기보검사라고 할 수 있다.

■ 음악 학습영역과 음악검사

음악학습의 평가를 위한 최종적인 도구는 음악학습영역과 검사방법의 조합을 통하여 만들어진다. 다음 <그림 3>은 음악학습의 영역과 음악검사 방법의 조합을 통하여 만들어진 음악검사의 분류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음악학습의 대영역, 중영역, 하위 영역에 있어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평가결과의 활용

음악학습 평가결과의 활용은 일차적으로 학습자의 성취수준을 보다 높이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교수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평가결과를 선발의 기초로 활용하려면 계량화가 가능한 검사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학습자간의 상대적인 성취를 서열화 할 수 있다.



<그림 3> 음악학습 세부영역에 따른 음악검사의 분류

2. 교육부 용역 교육개발원 연구결과의 허구와 문제점

1) 연구진 구성의 문제점

교육개발원은 2007년 3월 교육부로부터 체육예술과목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방식에 관한 연구용역을 받아 7월에 ‘체육·예술교과 평가방법 개선방안 연구: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방식을 중심으로’(이하 개발원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였다(교육개발원, 2007). 이 수탁연구에는 정택희를 책임연구자로 김순남, 남궁지영, 김주아 등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였으며, 박도순, 김재복, 허경철 등이 자문위원으로, 교육부의 양원택 연구관이 협력관으로 참여하였다.

참여연구자들의 전공은 체육·음악·미술 교과교육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교육평가나 교육과정 학자들이다. 이들 전원이 체육·예술교과의 본질과 성격을 학문적으로 다룰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들에 의해 급하게 연구된 결과의 학문적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처음부터 잠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연구 참여진의 구성

이름	전공	직책	소속
정택희	교육심리·교육평가·교육방법	책임연구	교육개발원 기관평가연구실
김순남	학교(기관)평가	공동연구	교육개발원 기관평가연구실
남궁지영	교육측정·평가·통계	공동연구	교육개발원 교육조사연구실
김주아	교육과정	공동연구	교육개발원 기관평가연구실
박도순	교육평가	자문	고려대학교
김재복	교육과정	자문	경인교육대학교
허경철	교육과정	자문	(전)한국교육과정평가원

2) 연구필요성 및 목적의 문제점

(1) 연구의 필요성

개발원 연구는 연구의 필요성으로 첫째, 2008년도 대학입시에서 내신성적 반영강화, 둘째, 전문가들에 의한 체육·예술교과 성적 기록방식 개선요구, 셋째,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체육·예술 교과의 중요성 강화를 들고 있다.

개발원 연구가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구체적 내용과 이의 위선적 허구성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내신 성적 반영 강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율 확대 방안(교육인적자원부, 2004)이 발표된 이후 2008년도 대학 입시부터 내신 성적 반영이 강화되어 학교 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 기록 방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입에서 학생부 반영 비율(내신)을 확대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은 교육부 스스로 공교육이 대입의 불모로 잡혀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대입에서 내신의 비율을 확대하는 방법밖에 학생들을 학원이 아닌 학교교육에 적극 참여 시킬만한 다른 대안들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현실에서 특정 교과를 내실화하는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입에서의 내신비율을 늘리는 것이다. 개발원 연구는 교육부 스스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대입내신의 확대가 거의 유일한 방법임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한 정책을 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이후 공교육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음악교과의 정상화를 위해 교과를 내신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매우 이중적인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음악교과의 성적 기록 방식 개선 요구

여러 학자들이 현행 체육·예술 교과의 서열식 등급화 평가가 교과 본연의 목적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평가 결과 기록 방식의 전환을 주장(김재춘, 2003; 백순근, 2003; 홍후조, 2002)하였다.

개발원의 연구의 필요성에서 제시하는 전문가는 음악교과의 성격을 아마 추어적으로 밖에 알 수 없는 비교과(非敎科) 교육학자들뿐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서열식 등급화의 폐해는 음악교과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국어, 수학, 영어 등 모든 교과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문제이다. 이들의 논리를 역으로 해석하면, 학교의 다른 교과에 있어서는 서열식 등급평가가 이들 교과 본연의 목적과 특성을 반영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현재 공립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서열식 평가 체제는 교과의 특성과 성격을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대입에서의 내신 부풀리기라는 문제점 때문에 그 비교육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부과된 정책일 뿐이다.

개발원 연구는 모든 교과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서열식 등급화 평가의 문제를 마치 음악교과에만 해당하는 문제인 것처럼 교묘하게 제시하여 연구의 필요성을 삼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음악교과 중요성 강화

체육·예술 교과의 중요성과 의미를 상급학교 진학의 수단적 가치 차원에서만 고려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좋은 석차와 등급 얻기에만 몰두하고 학습 자체에는 관심이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인문학적으로나 경제학적으로나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체육·예술 교과의 위상을 고려할 때 교육적으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학생들이 석차와 등급에 얽매이지 않고 학습과 수업 그 자체를 중시하도록 하며, 체육·예술 교육의 내실화를 제고할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 발달상황 기록 방식을 강구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가 되었다.

개발원연구는 2007년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음악교과의 중요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평가결과 기록 방식을 내신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교육전문가라면, 혹은 교육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들이라고 할지라도 한국의 교육상황에서 특정교과의 교육을 강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입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것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개발원연구에서 필요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위의 문장의 진정한 주어는 음악교과가 아니라 입시로 인해 본말이 극도로 전도된 소위 '입시과목'들이다. 개발원의 연구자들은 예술체육이외의 다른 학교 교과들은 '좋은 석차와 등급 얻기에만 몰두하고 학습자체에는 관심이 적어도' 상관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개발원 연구자들의 논리는 또한, 학교의 다른 교과들은 '학생들이 석차와 등급에 얽매이지 않고 학습과 수업 그 자체를 중시하도록 하며, 교과 교육의 내실화를 제고할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 기록 방식을 강구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는 아니다'라는 것과 다름없다.

해방이후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내실화·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입시현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유독 예술·체육 교과에 대해서만 '서열화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방식이 교과 내실화·정상화의 필요'라는 논리는 미리 정치적 목적의 결론을 정하고 이를 허구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정치적 연구의 필요성을 몇 개의 평가용어를 사용하여 포장하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2007년도 교육과정에서 강화된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현실화 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수를 늘리고 내신에서 음악교과의 비율을 지금보다 늘리는 것이다. 영어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새로 도입되고, 시수가 계속 늘고 있는 이유는 국제화 시대 영어의 중요성 때문이다.

21세기가 문화예술의 시대이고, 이 때문에 문화예술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한국의 특수한 입시위주 학교 환경에서는 시수를 늘리고 입시 반영비율을 높이는 것이 거의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2) 연구의 목적

개발원 연구보고서는 위의 허구적 필요성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체육·예술 교과 성적 기록 방식이 적절치 못하다고 보고 체육·예술 교과의 내재적 가치를 실현하고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식 개선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개발원연구의 연구자들이 규정하고 있는 음악교육의 내재적 가치는 다음 문장에 요약되어 있다:

우리가 체육이나 예술을 대할 때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은 운동을 즐기고, 예술 작품을 보거나 듣는 일이다. 스포츠를 관람하고, 음악회·미술전람회를 찾아 감상하며, 나아가 여러 가지 운동에 참여하고,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며, 그림을 그리고,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는 활동을 즐긴다면 이것이 곧 예술 교육의 기본이 된다. 이러한 즐거운 활동을 통해 일반 교과에서 강조하는 지력(IQ)과 함께 건강한 심신과 감수성(EQ)을 키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초·중등의 보통 교육에서 지향하는 체육·예술 교육의 목표이기도 하다.

개발원 연구자들은 음악교육의 본질을 ‘즐기는 교과’로 규정한다. 더욱이, 일반교과에서는 지력(IQ)을 강조하는 반면, 음악교과는 감수성(EQ)을 키우는 것이 중점이며, 이것이 초중등 음악교육의 목표라는 것이다.

음악교과의 본질을 철저하게 아마추어적 시각에서 기술하고 있는 이러한 성격규정은 개발원 연구자들의 비전문성을 여지없이 드러낸다. 이들의 지능이론은 지적인 능력을 수리나 논리의 능력과 동일시한 19~20세기 초의 일원론적인 이론에 머물러 있다. 익숙한 문화권의 음악을 들을 때 겪는 음악적 경험은 익숙하지 않은 문화권을 음악을 들을 때의 음악적 경험과 매우 다르다. 이는 음악적 경험이 고도로 지적인 것임을 의미한다. 더욱이, 음악적 경험이 고도의 지적 능력이라는 이론은 이미 가드너를 포함한 현대 인지심리학자들에 의해 증명되어 이미 일반화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교과의 본질을 단순히 ‘즐기는 것’(enjoyment)으로 규정함으로써 고도의 인지적 경험인 음악적 경험을 ‘감각적 경험’(sensual experience)로 단순화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음악경험에서 감각적 요소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음악을 통해 얻는 경험은 단순한 감각적·주관적 쾌(快)가 아니다. 음악은 ‘조직화·의도화된 감각’이며, 음악이 조직화·의도화된 감각이라는 것은 음악적 경험이나 과정에서 ‘인지작용’(조직·의도)과 ‘지각작용’(감각)이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음악은 인지와 감각이 가장 고도로 통합된 형태이며, 음악적 경험이나 학습은 감각적 즐길 이상의 통합적 경험을 키워줄 수 있으며, 이러한 통합적 인식능력의 중요성은 2004년 발행된 교육부의 홍보문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교육인적자원부, 1999).

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업을 하며, 평가를 통해서 그 목표를 제대로 달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 목표에 있어서도 지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적인 영역 또한 골고루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 교육은 지적인 능력의 신장에만 치중했고, 그로 인해 학교 교육의 비정상화를 초래했습니다.

교육부 문서는 학교의 모든 교과가 오히려 음악교과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정의적 영역'을 더 강화하여 다루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 수행평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즉, 수행평가를 통하여 정의적 영역의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절대기준 방식으로도 기록할 수 있고, 상대기준 방식으로도 기록할 수 있는 것이다.

개발원의 연구자들은 음악에 대한 극히 단편적인 지식을 절대화하여 음악교과의 성격을 규정하는 아마추어적 오류를 범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과와 관계없이 정의적·감각적 영역의 평가를 강화하고 있는 현대적 흐름을 도의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증거들을 통하여 개발원 연구가 외적으로는 객관적 연구인 듯한 포장을 하고는 있으나, 교과의 성격에 대한 극히 비상식적이고 어설픈 전체를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의 근거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연구방법

개발원 연구는 문헌, 전문가 협의회, 민원분석, 면담조사, 및 설문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개발원연구가 사용한 방법 자체는 매우 상식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내용을 분석해보면 객관성이 생명인 연구자의 윤리를 저버리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연구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연구방법을 비학문적으로 조작한 듯한 흔적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1) 문헌연구의 문제점

개발원 연구자들이 평가기록 방식이외에 음악교과의 성격규정에 의존하는 문서는 연구자들의 용역에 의해 김재복에 의해 작성된 “중등학교 체육·예술교육 교과의 교육과정 특성” 원고이다. 문제는 개발원 보고서가 의존하고 있는 김재복의 논문이 음악교과의 교육과정의 본질에 대한 비전문가의 왜곡된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상식적 문서라는 점이다.

김재복의 음악교과론

다음은 김재복의 음악교과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글의 일부이다:

체육·예술의 본래적 특성에 비추어 체육·음악·미술 교과의 일반적 특성을 종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력과 감각 능력을 키우는 교과이다. 체육과 예술 활동은 소리를 내야하고, 색칠을 해야 하며, 조형을 해야 하고, 움직여야 하며, 접촉해야 한다. 체육과 예술은 움직임, 형태, 소리, 맛, 냄새, 감촉 등의 모든 직접적인 운동과 감각으로 세계를 직접 경험하는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운동과 감각적 감지(感知)는 대상을 논리적으로 수용하는 인지 과정과 달리 공간 지각이나 상상, 이미지까지 포함하는 통합적이면서도 주관성을 내포한다.

둘째, 사회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과이다. 여러 가지 신체 활동과 어울림으로 이루어지는 소리, 타인의 작품을 즐기는 미적 감수(感受)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 여럿이 함께하는 활동이 중심이 된다.

이런 경우 타인과의 협력과 조화를 추구하며, 이를 통해 사회성이 함양된다. 또한 신체 활동과 예술 활동은 인간의 창의성 개발을 촉진시킨다. 창의성이란 기존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문제에 접근하는 사고의 양식을 말한다. 움직임과 소리 및 형태의 표현이 융통성과 독창성을 가질 때 활동의 능률성과 미적 가치의 감득(感得)이 제고된다.

셋째, 전인교육의 바탕이 되는 교과이다. 체육·예술 교육은 인간의 발달을 조화롭게 한다. 즉, 이들 교육은 신체적·지적·정서적·사회적으로 조화로운 발달을 목표로 하는, 그리고 초·중등 보통교육의 이상인 전인 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중등학교의 체육·예술 교육은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 어울림과 아름다움을 통한 인간 발달을 촉진한다. 이들 활동은 지적으로 미리 정해진 가치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과 표현의 내적 욕구를 자연스럽게 발휘하도록 하여 심신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발달하도록 돕는다.

위의 글에서 김재복은 음악교과의 성격을 첫째, 감각능력을 키우는 교과이며, 둘째, 사회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교과이며, 셋째, 전인교육의 바탕이 되는 교과로 규정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 음악교과의 성격을 바르게 규정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의 해석은 교과에 대한 무지를 그대로 드러낸다.

김재복은 음악교과의 성격으로 감각능력의 육성을 들고 있다. 그는 “이러한 운동과 감각적 감지(感知)는 대상을 논리적으로 수용하는 인지 과정과 달리 공간 지각이나 상상, 이미지까지 포함하는 통합적이면서도 주관성을 내포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음악에서의 감지작용이 대상의 논리적 수용인 인지과정과 별개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김재복은 예술에 대한 철저한 물이해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수준의 예술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현대의 구성주의는 완전한 객관적 인지라는 것이 불가능함을 잘 설명하고 있으며, 인지와 감지는 인식의 연쇄적 과정으로서 이론적 설명을 위한 구분일 뿐 김재복이 이해하고 있듯 별개의 분절적 현상이 아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국어교과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예술형식으로서의 문학(시, 소설, 수필 등 인지와 감각 작용을 모두 필요로 하는 통합적 인식)은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감각적인 능력을 키워기 위해 가르치는 것이 된다. 문학의 내용을 이해하고 즐기기 위해서는 문학 작품에 사용된 언어적 재료에 대한 인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문학에 있어서 인지와 감지가 상호 의존적인 것과 동일하게 영화, 음악, 미술을 포함한 모든 예술은 인지와 감지의 상호작용 속에서 통합적으로 경험되는 것이다.

다른 모든 예술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음악적 경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감각적 즐거움(sensual pleasure)을 음악교과의 우선적 성격으로 규정하는 것은 수학이나 과학과 같은 교과의 감각이나 주관적 요소를 부정하고 오직 논리적인 교과로만 규정하는 것과 같은 지극히 편협한 인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¹⁾

김재복은 음악교과의 두 번째 특성으로 사회성과 창의성의 함양을 들고

1) 앞서 언급한 교육부의 ‘수행평가 홍보자료’도 학교의 모든 교과에 있어서 정의적 영역의 학습과 평가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있다. 사회성과 창의성이 음악교과와 중요한 강조점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사회성과 창의성을 음악교과와 성격으로만 제한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사회성 함양의 문제는 음악교과나 체육교과에만 해당하는 목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은 '홍익인간'의 육성을 지향한다. 홍익인간은 기본적인 사회성의 개념을 내포한다. 즉, 학교의 모든 교육적 경험이나 과정이 사회성의 육성이라고하는 목적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김재복의 논리는 수학선생님은 수학만 가르치면 되고, 과학선생님은 과학만 가르치면 된다는 식의 논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홍익인간을 육성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와 경제적인 목적으로 지식만을 사고파는 사교육의 차이점이 사라지게 된다. 학교의 모든 교사는 교과배경에 관계없이 교육자가 되어야하며, 모든 노력을 기울여 학생들의 사회성을 길러주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성의 육성이라고 하는 특성은 학교의 모든 교과와 지향점 가운데 하나이지, 음악교과만의 특수한 성격이라고 볼 수 없다.

둘째, 음악교과에서 창의성이 핵심적인 성격이라는 주장 자체는 타당하다. 그러나 현대교육에 있어서 창의성은 모든 교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향해야 할 교과목표이다. 창의성은 수학교과에 있어서도, 과학교과에 있어서도, 국어교과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목표이다. 어떤 교과이던 지식과 기능을 기계적으로 주입하는 것은 지난세기의 낡은 객관주의적 인식론의 단면을 보여줄 뿐이다. 학교의 모든 교과는 사고의 재료로서의 지식이나 기능의 단순습득보다 이들 요소들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는 고등사고의 함양을 중시한다. 즉, 창의성은 예술교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사회성과 마찬가지로 모든 교과와 공통된 목표이지 음악교과만의 특성은 아닌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재복은 음악교과를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 어울림과 아름다움을 통한 인간 발달을 촉진하기 때문에' 전인교육의 바탕이 된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1학년에서 10학년까지의 '국민공통 보통교육'의 존재 이유에 대한 언명이지, 음악교과만의 특별한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주장의 외연을 확대하면, 보통교육기간의 학교 교과들 가운데서 '전

문가 양성에 주력하고 전인교육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교과'와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 전인교육에 주력하는 교과'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된다.

그의 이러한 인식은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가 어디서 기인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공교육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아니다. 공교육 기간의 모든 교과는 미래의 국민들이 지적, 정서적, 육체적으로 균형 잡힌 전인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한다. 여기에는 교과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물론, 개별교과에 대한 개인적 관심과 이들에 대한 심화과정을 통하여 전문가를 양성할 수 도 있지만, 상식이 있는 학자들 중에 공교육 기간이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간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김재복의 음악교과론은 공교육 제도하의 모든 교과의 공통적인 성격을 가지고 음악교과를 규정하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 김재복이 언급하고 있는 감각, 사회성, 창의성 및 전인의 이념은 음악교과뿐 아니라 모든 교과의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

학교의 모든 교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음악교과의 내용도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음악교과 특성은 학습의 영역 가운데 정의적 영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음악적 경험의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특성이 다른 모든 교과와 차별되는 독특한 것이라는 데 있다.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만 경험될 수 있는 이러한 독특한 학습의 경험은 매우 지적인 것이며(모든 학습은 기본적으로 지적인 것이다), 인간의 지적능력을 균형 있게 계발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김재복의 음악평가론

김재복은 음악교과의 성격에 대한 왜곡된 규정을 전제로 음악교과의 평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교육적 특성을 가진 체육·예술 교과가 학습지도 및 평가에서 가지는 특성도 다른 교과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첫째, 정형화된 교육방식이나 정확한 답이 없다. 신체적·예술적 활동은 자신

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나타낸다. 즉, 체육이나 예술 활동은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 감정, 정서 등을 나름대로 들어낼 수 있고, 또 독창성을 가질 때 더욱 가치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들 교과 수업이나 평가 방법 또한 다른 교과목과는 달리 자유롭게 표현하는 기회를 확대해 주고, 지도자는 발견과 강화의 방향으로 안내해 주어야 한다.

둘째, 신체와 예술을 통해 자신들의 느낌을 표현한다. 체육과 예술 교과의 시간은 교사의 동기화 과정에서 활동과 표현의 흥미가 전제되고, 표현의 과정에서 창조와 도전의 재미가 함께 한다. 그리고 신체적·예술적 활동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타인의 활동과 연주 및 작품을 보거나 들으면서 가치를 감득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

셋째, 신체와 예술로 자신 및 타인과 의사소통을 한다. 의사소통의 수단은 언어적 수단이 있고 비언어적 수단이 있다.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의 교과는 언어적, 수리적, 논리적인 의사소통인데 반해 체육·예술 교과는 신체적 움직임과 연주 및 작품을 통해 비언어적 방법으로 정서적·감각적인 의사소통을 한다. 따라서 많은 경우 감정이 함께하는 간주관적인 의사소통이 전제된다. 그러므로 언어적 소통처럼 객관적이고 외현(外現)적인 잣대에 의한 정확성보다는 융통성과 주관성이 내재된 소통이 이루어진다.

넷째, 양적 판단이 아닌 질적 느낌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체육·예술 교과 개인의 취향과 감정·정서라는 복잡하고 유동적인 것과 관련된 활동 중심의 교과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측정 또는 평가가 어려우며, 객관적인 관점이나 기준 제시가 어렵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평가 상황에서는 평가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도 주관성이 개재될 수밖에 없다. 또한 체육·예술 교과가 활동 욕구, 정서, 개성,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과이므로 점수화·상대화하려는 평가는 학생들의 활동 의욕과 창작 의욕을 저하시키고,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며, 평가에 의해 교육 목표가 저해되는, 다시 말해 주객이 전도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양적 측정과 판단보다는 질적 느낌을 통한 가치를 심도 있게 다루고, 나아가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능력, 활동상황에 따른 개성, 상상력, 창의성 등이 발휘될 수 있는 촉진적 측면에서의 기술(記述)이 요구된다.

김재복의 음악교과 평가관점은 비전문가의 무지를 더욱 여과없이 드러낸다. 그에 의하면 음악교과는 첫째, 정형화된 교육방식이나 정확한 답이 없다는 것, 둘째, 예술을 통해 자신들의 느낌을 표현한다는 것, 셋째, 예술로 자신 및 타인과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 넷째, 양적 판단이 아닌 질적 느낌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결과적으로 “점수화·상대화하려는 평가는 학생들의 활동 의욕과 창작 의욕을 저하시키고,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며, 평가에 의해 교육목표가 저해되는, 다시 말해 주객이 전도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음악교과에는 정형화된 교육방식이나 정확한 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음악교과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일반화시키는 순진한 논리로 음악교과와 성격의 논한 부분에서와 같이 음악교과의 교수학습내용이나 평가를 노한 이 부분에서도 김재복은 음악교과의 내용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가운데 단지 하나의 요소를 일반화·절대화시키는 비학문적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예술은 감정의 직설적 표출이 아니다. 음악은 언어와 마찬가지로 최초의 인류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문화의 핵심요소들 가운데 하나로 존재해 왔으며, 오랜 역사를 지나는 동안 모든 문화권에는 음악에 대한 정형화된 양식과 법칙이 존재한다. 음악대학에서 이수해야 하는 수많은 ‘정형화’된 전공이론 과목(화성법, 대위법, 악식론 등)의 존재는 음악의 자유로운 창작을 위하여 답이 명확한 수많은 영역을 학습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의 단순한 논리대로라면 논리보다는 감각에 의존하는 시와 같은 문학·예술장르는 정형화된 교육방식이나 정확한 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어의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서술식으로만 평가해야한다는 것이 된다.

음악의 최종적인 표현은 다 다르겠지만, 음악의 창작과 수용과정은 음악을 만드는 사람과 수용하는 사람이 공유하는 문화적 재료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표현자와 수용자가 공유하는 문화적 재료와 기능은 객관적인 것이며 정확한 답이 가능한 것이다. 다른 모든 예술과 동일하게 음악의 과정에는 재료의 측면과 재료의 창의적 구성이라는 측면으로 나누어진다. 음악작품은 음악의 재료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형화된 지식(knowledge)과 기능(skills)이 전제되지 않은 행위는 예술이 아니고 단순한 ‘표출’일뿐이다.

학교 음악교육의 많은 내용은 결과로서의 예술작품의 토대가 되는 음악적 재료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음악적 재료에 대한 지식과 기능은 문학예술에서 문법이나 언어의 정확한 의미에 대한 학습

과 마찬가지로 매우 객관적인 것이다. 따라서, 음악교과에는 정형화된 교육 방식이나 정확한 답이 없다는 주장은 음악예술의 전과정에 대한 무지를 여실히 드러내 주는 비상식적 주장이다.

‘예술을 통해 자신들의 느낌을 표현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물론 음악적 과정에 있어 느낌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김재복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음악을 통해 표현되는 느낌은 사고(artistic intention)에 의해 매개(mediated)된 느낌이라는 것이다. 즉, 느낌을 조직하고(organization) 형식화하는(formalization) 과정이 없이는 예술자체가 불가능하다. 예술의 과정에서 느낌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느낌을 형식에 담는’ 과정이다. 일반인과 예술가를 구분하는 기준은 느낌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느낌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형식화 할 수 있는가 아닌가이다. 즉, 주관성의 영역인 느낌보다는 객관성의 영역인 조직이나 형식화의 능력이 예술적 과정의 핵심인 것이다. 음악은 느낌을 표현한다는 애매한 주장을 강조하는 것은 음악의 과정에 필수요소인 객관적이고 형식화된 사고과정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이거나, 음악의 개관적 형식적 요소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저의가 있다고 밖에는 달리 볼 수 없다.

‘양적 판단이 아닌 질적 느낌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주장에 대하여

음악에 대한 무지를 이 주장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평가(evaluation)이라는 개념은 ‘어떤 행동이나 현상에 대해 가치(value)를 부여하는 과정’이며 평가의 개념 속에 질적 느낌이나 주관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은 교육평가 이론의 가장 기초적인 상식이다. 문제는 질적 느낌이 평가의 과정과 결과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는가이다. 음악평가 과정에서 질적 느낌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음악의 평가에는 질적느낌과 함께 장르적 지식, 정형화된 기능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즉, 질적 느낌의 평가는 그밖의 매우 다양한 평가교소들 가운데 하나일 뿐 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재복이 말하는 ‘질적인 느낌’도 전술한 바와 같이 형식화의

과정을 거친 느낌을 다루기 때문에 단순히 '슬픔'이나 '기쁨'을 계량화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다. 즉, 음악에서 나타나는 느낌은 상당한 수준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근거한 양적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음악콩쿨의 심사결과의 타당성이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 조직화되고 형식화된 느낌의 양적 평가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양적 측정과 판단보다는 질적 느낌을 통한 기술(記述)이 음악교과에 적합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김재복은 음악교과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지극히 편협하고 비상식적인 인식에 근거하여 “양적 측정과 판단보다는 질적 느낌을 통한 가치를 심도 있게 다루고, 나아가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능력, 활동상황에 따른 개성, 상상력, 창의성 등이 발휘될 수 있는 촉진적 측면에서의 기술(記述)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기술적 평가는 학습력의 제고라고 하는 평가본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가능케하는 평가방법들 가운데 하나이다. 김재복의 주장처럼, 음악교과의 내용이 ‘주관적인 느낌의 표현’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기술적 평가방식이 가장 타당한 방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수차례 언급한 바대로, 음악교과의 내용은 주관적 느낌의 경험 뿐 아니라 객관적이고 형식화된 지식이 매우 중요한 영역을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음악교과에서 강조하는 느낌도 고도의 지적과정에 의해 매개된, 그래서 일정한 지적 기준에 의해 양적 측정이 가능한 영역이라는 점이다.

물론, 형식화된 느낌을 점수로 절대화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권위있는 콩쿠르의 예에서와 같이 음악적인 느낌을 얼마나 형식적인 틀 안에서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가 하는 것을 서열화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문제는 음악교과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교과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문제이다. 교육평가에 대한 매우 기초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어나 영어 수학을 포함한 학교의 모든 검사가 본질적으로 서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수학에서 100점을 맞았다는 것이 완벽한 수학적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교과와 교사가 평가의 내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평가방법 가운데 하나일 뿐인 서술식 평가가 마치 음악교과와 성격에만 가장 부합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평가일반이나 음악교과교육에 대한 무지에서 온 미숙한 주장이거나, 미리 결정된 연구결과를 기만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음악교과와 성격·내용과 평가의 인과관계를 허구적으로 왜곡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 전문가 협의회의 문제점

개발원 연구는 2007년 3월과 5월 총 6회의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 협의회를 거쳤다는 3줄의 간단한 보고 이외에 참여한 전문가가 누구였는지,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된 의견이 무엇이었는지 등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정보를 누락시킴으로서 연구의 신뢰성을 스스로 감소시키고 있다.

(3) 민원분석의 문제점

개발원 연구는 체육예술교과에 대한 민원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3년 8월에서 2007년 3월까지 교육부홈페이지에 접수된 20건의 내용을 분석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를 나누면 연간 약 5건의 민원을 분석한 것이 된다. 무엇보다도 전국에서 체육·예술교과와 관련되어 제기된 연간 약 5건의 민원분석이 주된 연구절차로 보고될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4) 설문조사의 문제점

개발원의 연구방법 가운데 설문조사의 내용이 연구의 비윤리성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다. 이들은 조사전문업체의 활용, 체계적 표집방법의 활용, 동질성 검정 등 조사연구의 외적 형식 자체는 체계적으로 사용한 듯 보인다. 문제는 정작 가장 중요한 설문의 내용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이 나올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점이다.

질문내용

다음은 고등학교 교사용 설문지 첫 번째와 세번째 질문이다:

1. 고등학교의 체육·음악·미술 교과는 현재 다른 교과와 마찬가지로 점수와 9등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기와 정서를 강조하는 체육·음악·미술 교과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체육·음악·미술 교과의 생활기록부 기록 방식이 타 교과 기록 방식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 달라야 한다.

_____② 같아야 한다.

3. 실기와 정서를 강조하는 체육·음악·미술 교과의 성격을 고려할 때 가장 바람직한 생활기록부 기록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바람직한 기록 방식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_____① 점수와 석차로 기록 _____② 등급으로 기록 _____③ 문장으로 기록

위의 질문들은 음악교과의 생활 기록부 기록방식이 타교과 기록방식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음악이 실기와 정서를 강조한다면 타교과의 기록방식과 달라야 하는가를 묻는 조건적 질문이다. 음악교과에 대한 부정확한 성격규정을 조건으로 이에 대한 응답을 묻고 있는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조작적인 문항임을 알 수 있다.

연구진의 조작적 질문은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영역을 균형있게 학습해야 하는 음악교과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음악교과의 생활기록부 기록방식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로 대체되는 것이 차라리 덜 조작적이라 할 수 있다. 질문의 조건자체가 교과의 성격을 바르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문의 쟁점선정

개발원 연구는 자신들이 미리 결정해 놓은 결과가 유도될 수 있도록 조사의 쟁점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이들이 선정한 쟁점은 음악이나 체육

과에만 해당하는 쟁점이 아니라 모든 교과에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쟁점들이다. 쟁점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이 마치 체육예술교과에만 해당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문제의 본질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쟁점 1 : ‘체육·예술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식이 다른 교과와 같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이 쟁점은 질문자체가 왜곡된 응답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질문은 학교의 교과를 체육·예술교과와 그 밖의 교과를 2분법적으로 나누고, 예술체육교과가 다른 교과의 평가와 달라야한다는 답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의 모든 교과는 교과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수학교과와 영어교과와 영어교과의 본질은 분명하게 다르다. 마찬가지로 영어교과와 음악교과의 본질은 분명히 다르다.

그러나, 평가방법이나 평가결과 기록방식은 교과와 관계없이 동일한 것이다. 수학에서 단순 지식이나 암기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객관식 지필고사가 활용될 수 있다면, 영어에서도 단순 지식이나 암기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동일한 검사를 활용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음악에도 단순지식이나 암기를 필요로 하는 학습영역이 있으며 이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객관식 지필검사를 활용할 수 있다.

음악교과에서 인지, 심동 및 정의적 영역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영역에 대한 학습이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마치 음악은 정의적 영역만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처럼 상식이 하의 성격규정을 앞세워 평가기록 방식의 차이를 묻는 것은 이미 결정된 결과를 유도하기 위한 교묘한 설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쟁점 2 : ‘체육·예술 과목에 대한 사교육 및 학습 부담이 있는가?’에 대하여

양심이 있는 학자라면 한국교육의 문제점과 현실을 교묘하고 의도적으로 체육예술교육에 전가하려는 이런 조작적 질문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애당초, 교육부의 이번 정책이 정권의 비현실적 대선공약의 실패부담을 예술체육

과목을 희생양으로 전가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방식으로 왜곡된 질문을 하는 것이 자연스런 결과로 보인다.

상식적으로 학교교육과 관련된 예술 체육 사교육은 전체 사교육 시장의 극히 미미한 부분을 차지할 뿐이다. 물론, 피아노나 태권도 등 예술·체육 사교육이 넓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종류의 사교육은 대부분 공교육과의 관련성 없이 이루어지는 영역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되는 입시·공교육 관련 사교육과는 성격인 전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원 연구의 두 번째 쟁점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 과제인 입시관련 사교육 문제에 있어서 예술체육 사교육이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기만적으로 유도하는 있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입시관련 사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교과가 무엇인가? 사교육이 마치 예술체육교육의 중요한 이수인 것처럼 유도하는 것은 정권의 무능으로 해결하지 못한 과제의 핵심요인을 애써 외면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입시위주의 학교문화로 인하여 소외되어가고 있는 힘없는 교과를 사교육 문제의 희생양으로 삼기위한 기만적 쟁점에 다름 아니다.

쟁점 3 : '체육·예술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식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체육예술 교과의 학생부 기록방식을 결정하는데 있어 교과의 성격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너무나 타당한 것이다. 문제는 다른 쟁점들과 동일하게 음악교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모든 교과에 해당하는 문제이며, 학생부 기록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음악교과의 본질에 대한 학문적 규명이다.

평가의 방법은 평가의 내용에 의해 결정되며, 평가내용은 교과의 내용에 의해 결정되고, 교과의 내용은 교과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교과의 성격은 교수-학습과정의 계획 - 수행 - 평가의 순환적 과정의 전제가 된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식은 교과의 학습을 내실화하고 학습자의 동기와 성취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입시가 모든 공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심하게 왜곡

시키고 있는 상황 하에서 입시관련성이라고 하는 현실적 문제를 제외하고 특정교과를 성격에 맞게 내실화하기 위한 그 어떤 방안도 실효성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개발원 조사의 세 번째 쟁점은 이미 연구의 출발시점에 주어진 교육부의 정책, 즉, 음악교과의 학생부 기록방식을 내신제외나 약화방식으로 변경하는 정책이 마치 현장에서 수렴된 여론인 것처럼 허구적으로 조작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 4 : ‘체육·예술 교과 평가 기록 방식이 서열화가 완화되는 방식으로 개선될 때 사교육 감소와 수업 참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쟁점 3에서와 동일하게 입시에 발목이 잡혀있는 우리나라 학교의 공교육 현실 하에서 이미 서열화의 완화나 폐지를 조건으로 쟁점을 만드는 것 자체가 연구의도의 불순성을 보여준다. 쟁점 4는 교육부나 개발원의 연구진들이 음악교과교육의 정상화와 내실화, 그리고 학생의 수업참여도를 높이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대입관련성을 높이는 것, 즉, 대입에 반영되는 내신비율을 높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듯, 서열화나 내신반영비율을 낮추는 것이 음악교육의 내실화와 참여도를 높인다고 하는 억지정책의 기만적 뒷받침을 위한 쟁점일 뿐이다.

4) 음악평가 기록방식 개선안의 문제점

개발원 연구는 음악교과에 대한 비전문적인 성격규정과 교육적 목적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미리 주어진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연구방법의 사용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음악교과의 성적기록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둘째, 석차/재적수(중학교)와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는 기록 요소에서 제외한다.

셋째, 체육·예술 교과목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식으로서 등급과 서술식을 병행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1) 절대평가 원칙

학교에서 절대평가방식을 사용할 것인가 상대평가방식을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평가의 목적에 관한 문제이지 교과와 성격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절대평가나 상대평가의 선택은 평가의 목적, 즉, 교육과정의 학습내용의 성취수준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인지(절대평가), 선발 또는 입시자료 제공을 위해 학습자간의 등급을 나누기 위한 것인지(상대평가)에 따라 이루어진다.

평가가 학습성취의 향상이라는 원론적 기능보다는 선발, 또는 입시의 기준 자료로서의 부차적 기능이 우선되고 있는 우리나라 공교육 평가현실의 문제는 특정교과와 문제가 아니라 범교과적인 것이다. 교육부 자체도 학교의 교육의 기준방향이 교육과정정보보다는 시험에 맞추어져 있는 왜곡된 현상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정책으로 지난 수년 동안 학교의 모든 교과에 '수행평가'의 도입을 강제해 왔다. 다음은 교육부의 수행평가 홍보자료에 수록된 내용이다(교육인적자원부, 1999):

▶ 수행평가를 왜 지금 시작하나요?

지금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앞둔 시점입니다. 새로운 천년의 시작을 앞두고 세계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지식·정보화, 세계화 추세는 우리의 생활 방식마저도 변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지닌 사람을 길러내야 합니다. 그러한 교육에 적합한 평가 방법이 바로 수행평가입니다.

▶ 수행평가가 대학 입시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예전에는 공부만 잘하면, 다시 말하면 지식을 많이 암기하거나 이해하고 있으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0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소질과 적성, 특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2002학년도부터는 각자의 소질과 적성, 특기에 따라 원하는 대학의 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적성과 소질이 어떤 것인지 가능한 한 빨리 발견하여 자신의 진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행평가는 교사나 학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의 적성과 특기를 잘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행평가는 앞으로의 대학 입시에 가장 적절한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수행평가는 앞으로 계속 실시되나요?

수행평가는 21세기에 살아갈 우리들의 자녀를 위한 평가 방법입니다. 시대가 달라지면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도 달라집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평가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행평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시될 것입니다. 또 수행평가는 우리 교육의 본질에 맞닿아 있으며, 우리 교육에 타당한 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정책의 변화와 관련 없이 계속 실시될 것입니다.

교육부가 스스로 홍보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행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절대평가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창의적이고 고차원적인 사고능력'을 지닌 사람을 육성하는 데 적합한 평가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지식을 많이 암기하거나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적성과 소질이 어떤 것인지 가능한 한 빨리 발견하여 자신의 진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21세기 학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의 수행평가 홍보자료는 이미 음악교과에서 이전부터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행기준(performance-based) 평가가 교육적으로 가장 타당한 대안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학교의 전교과에 적용하게 하기 위한 자료이다.

그러나 절대기준에 의한 수행평가방식은 선발기능이 우선하는 입시위주의 학교문화에 의해 왜곡되어 '성적부풀리기'의 폐해를 낳았고, 교육부는 '정책의 변화와 관계없이 계속 실시할 것이라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입시풍토의 압력에 굴복하여 고등학교의 성적기록방식을 다시 상대화/등급화로 회귀시켜 놓았다.

다시 말하자면, 교육부나 개발원이 음악교과의 평가와 관련하여 주장하고 있는 절대평가방식의 문제는 음악교과에만 해당하는 과제가 아니라 모든 교과에 해당하는 과제이며, 교육부 스스로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실패한 절대평가 정책을 음악과의 평가에만 적용시키려 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이중적 태도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2) 학생부에서 석차/재적수(중학교)와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의 제외
학생부에서 석차와 원점수를 제외하는 기록방식은 교육부나 개발원 연구

의 기만성과 허구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방안이다. 전교 석차나 성취의 상대적인 수준을 알 수 있는 평균/표준편차를 제외하는 것은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내신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평가나 통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교사나 국민들은 실제 이러한 말장난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려우며, 결국 이런 식의 교묘한 전략의 피해는 이 정책이 시행된 이후 학교 음악교육이 황폐화 된 이후에나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3) 체육·예술 교과목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식으로서 등급과 서술식을 병행

이 제안에도 개발원 연구의 교묘함이 드러난다. 이 제안 자체로만 보면 음악교과에도 등급의 요소를 도입하기 때문에 내신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제안은 등급화가 절대평가와 결합되는 순간 '등급'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연구자들이 음악교과의 등급화가 서열화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한 것 뿐이다.

우리나라 학교의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여 수행평가를 포함한 절대평가 정책을 주장해왔던 교육부가 '내신 부풀리기' 때문에 9등급 상대평가로 후퇴한 것이 이를 잘 증명한다. '등급화'라는 용어를 언급함으로써 마치 학교나 교사가 원하면 상대적인 평가가 가능한 것처럼 교묘한 인상을 주지만 절대평가 제도하에서의 등급화는 '성적 부풀리기'로 인해 서열화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는 것이다.

5) 개발원 연구결과의 기대효과의 문제점

개발원 보고서는 연구결과의 기대효과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첫째, 석차(중학교)와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고등학교)을 기록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나친 개인 간 경쟁을 완화하고, 협동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이 가능해 진다.

둘째, 등급을 3단계로 함으로써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부작용

을 완화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변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셋째, 등급부여를 교사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교사의 평가권을 강화하고 등급을 축소함으로써 교사의 평가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다.

넷째, 교과 본질에 적합한 정상적 교과운영을 지원할 수 있고 내실을 기할 수 있다.

다섯째, 학생과 학부모는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나고 학습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

- (1) ‘석차(중학교)와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고등학교)을 기록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나친 개인간 경쟁을 완화하고, 협동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이 가능해 진다’는 주장에 대하여

개발원이 이 논리는 학교의 타교과에서는 지나친 개인간 경쟁을 조장하고 협동적인 학습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과 동일하다. 석차와 원점수를 기록에서 제외함으로서 학교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순진한 정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 정책은 서열화의 폐해가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소위 ‘주요교과들’에 적용하여야 마땅하다. 연구자들은 지독한 서열화로 인하여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학생들까지 등장하는 문제의 원인이 음악교과의 서열화에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 (2) ‘등급을 3단계로 함으로써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완화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변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은 교육부의 수행평가 홍보자료에 제시된 내용의 일부이다(교육인적자원부, 1999):

▶ 수행평가에서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나요?

수행평가는 기본적으로 주관식 평가입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는 교사의 전문적이면서도 교육적인 판단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100%의 객관성을 보장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은 객관성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연수에 참여하여 평가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 것은 물론, 스스로 자질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모임, 즉 교과 협의회를 통해 수행평가를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합니다. 공동으로 수행평가 문항을 만들면서 채점 기준과 예시 답안을 미리 작성하고 그것에 준하여 채점을 하는 것은 객관성 보장을 위한 노력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의 이러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학생·학부모 등 우리 모두가 선생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만 수행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홍보하고 있는 바와 같이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의 문제는 '교사의 전문적이면서도 교육적인 판단'을 중시하고, 교사들이게 평가기법에 대한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교사를 신뢰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즉, 교육부 스스로 주관성이 강한 내용에 대한 평가라도 얼마든지 타당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나 개발원은 음악교사에 대한 불신 하에 교사의 재교육이나 신뢰도가 높은 평가도구의 개발 등에 대한 정책지원을 외면하고,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등급을 단순화한다는 비교육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등급을 단순화함으로써 평가의 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는 개발원 연구자들의 진술은 이들이 평가의 기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평가에 있어서의 타당도는 '검사가 재고자하는 내용을 재는 정도'를 의미한다. 검사결과와 등급을 단순화 하는 것과 검사의 타당도 사이에는 관련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급화와 관련하여 타당도의 제고를 논하는 연구자들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 (3) '등급부여를 교사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교사의 평가권을 강화하고 등급을 축소함으로써 교사의 평가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절대평가에 의한 등급화를 교사의 자율에 맡기고, 등급을 축소함으로써 교

사의 평가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론상으로는 타당하다. 그러나 이 역시 학교의 모든 교과에 관련된 것이지 예술체육교과에 더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데에서 허구성을 찾을 수 있다. 개발원의 주장은 음악교사에 게만 더 많은 평가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음악교사의 업무만 간소하게 만들어 주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평가의 자율성이라는 의미는 평가의 방법과 기록방식 등을 교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 현실적으로 상·중·하 3단계의 등급 중 ‘하’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지난 몇 년 간의 ‘내신 부풀리기’의 만연 현상이 잘 증명해준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교사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절대평가 방법’안에서 ‘상’이나 ‘중’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데 이를 두고 ‘교사의 판단에 맡김’으로서 교사의 평가권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허구적일 수밖에 없다.

(4) ‘교과 본질에 적합한 정상적 교과운영을 지원할 수 있고 내실을 기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전술한 바대로, 연구자나 연구의 협력진들은 음악이나 음악교과의 문외한들로서 교과의 본질이나 성격을 규정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규정하고 있는 음악교과의 본질이라는 것은 ‘주관’과 ‘느낌’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음악교과가 주관과 느낌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이를 계량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서열보다는 서술식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교과의 성격에 더 타당하다는 단순논리를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의 전반부에 제시한 바대로 음악교과는 학교의 모든 교과와 동일하게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영역의 학습내용을 포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드너가 지적한 바대로 음악을 보편적이고 비판적인 수준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되고 ‘정형화’된 지식 (knowledge)과 기능(skills)을 습득하여야만 한다.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평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방식의 평가가 효과적인가 하는 점은 그 교과의 내용과 구조를 바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에 의해 결정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예술로서의 음악이나 교과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에 대한 체계적 경험과 지식이 거의 없는 타분야의 연구자들이 음악교과 교육의 한 부분인 ‘주관성’과 ‘느낌’을 음악교과 본질의 전부인 것처럼 단순전제하고, 음악교과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전제를 근거로 특정한 평가방법이나 결과기록방식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5) ‘학생과 학부모는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나고 학습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조사연구의 쟁점선정 문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식적으로 학교교육과 관련된 예술 체육 사교육은 전체 사교육 시장의 극히 미미한 부분을 차지할 뿐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입시관련 사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교과가 무엇인가? 평가결과 기록방식의 변경의 효과에 대한 이 주장은 사교육이 마치 전체 공교육의 사교육 문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슈인 것처럼 유도하고, 이를 전제삼아 힘없는 교과를 사교육 문제의 희생양으로 삼기위한 주장에 다름 아니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음악의 학습과 평가에 대하여 교과교육론적 관점에서 논한 후, 음악교과의 문외한들인 비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진 개발원 연구의 허구와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개발원의 음악평가 기록방식에 대한 이 번 연구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개발원의 연구는 음악교과의 본질과 학문적 내용체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연구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현저히 낮은 연구이다.

둘째, 연구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는 쟁점들이 학교의 모든 교과에 공통

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들이거나, 교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에 의해 제기된 쟁점들이라는 점에서 왜곡되어 있으며,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수행된 연구의 필요성을 은폐하기 위해 허구적으로 고안되어다는 의혹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셋째, 연구에서 사용된 문헌연구, 전문가 협의회, 민원분석, 설문조사 등의 방법이 의도된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편파적으로 왜곡되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학문적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연구결과로 제시한 ‘음악평가 기록방식 개선안’은 학교의 모든 교과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들임에도 불구하고, 교과에 대한 비상식적인 성격규정을 근거로 음악교과에만 편파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저하게 비학문적·정치적인 것이다.

다섯째, 평가기록방식의 변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에 있어서도 학교의 전 교과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을 음악교과에만 해당하는 것처럼 특수화함으로써 왜곡된 개선안에 대한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개발원의 본 연구는, 교육부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만들어진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루어진 정책연구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연구의 동기, 교과교육의 성격에 대한 왜곡, 연구절차의 졸속성과 조사방법의 교묘한 왜곡, 그리고 그러한 비윤리적 방법에 따른 비현실적·비학문적 정책대안과 이에 수반하는 효과의 왜곡 등, 철저하게 비상식적으로 이루어진 기만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목적에 의해 기만적으로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개발원의 이번 연구와 관련하여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대입시에 포로가 된 공교육을 정상화할 능력이 없는 정권이 정권의 말기에 학교의 모든 교과, 특히 입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주지중심 학교교육의 왜곡된 상황에 대한 사회적 불만을 비교적 저항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는 체육예술 교과에 전가하기 위해 추진하는 기만적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입시중심의 학교문화 현실 속에서 교육부가 주장하는 바대로 음악교육의 본질을 살리면서 수업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음악교과의 수업 시수를 늘려야 한다.

둘째, 학교 내신에서 음악교과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셋째, 입시에서 학교의 예술체육 관련 활동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규정을 대학들에 강제하여야 한다.

넷째, 음악교사들이 보다 타당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미 책정된 1,000억 원의 예술체육 지원 예산이 확실하고 공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여섯째, 21세기 문화중심 지식기반사회에서 음악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법의 형태로 음악예술교육 지원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 (2007). **체육·예술 교과 평가 결과 기록 방식 개선 내용 안내**. (교육부 홍보자료)

교육인적자원부(1999). 『수행평가』 이렇게 한다. (교육부 홍보자료).

권덕원 외(2005).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권덕원(2007). “교육부의 ‘예술 및 체육 평가 개정안’에 반대하며”, **음악교육 방법의 재조명**(2007년 제38회 여름학술세미나 자료), 한국음악교육학회. pp. 1-9.

김채영(1980). “교육의 인식론적 지평확대에 관한 연구: 예술교육의 전망.” **교육철학** 4, pp. 36-48.

성경희 외(2004). **체육·음악·미술 교과 평가 체제 개선 연구**. 서울: 한국

교육과정평가원.

정택희 외(2007). **체육·예술 교과 평가 방법 개선 방안 연구: 교과학습발달
상황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식을 중심으로.** (수탁연구 CR 2007
- 35). 한국교육개발원.

Aiello, R.(1994). ***Musical Percep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Bamberger, J.(1991). ***The mind behind the musical ear: how children
develop musical intelligen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Boardman, E.(1989). ***Dimensions of musical learning and teaching: a
different kind of classroom.*** Reston, VA: MENC.

Boardman, E.(2002). ***Dimensions of musical thinking.*** Reston, VA:
MENC.

Elliott, E. D.(1995). ***Music matt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Gardner, H. (1992). ***ARTS PROPEL: A HANDBOOK FOR MUSIC.***
Educational Testing Service.

Gardner, H. (1994). ***The arts and human development.*** NY: Basic
Books.

Glover, J. A., R. Ronning, and R. Bruning.(1990). ***Cognitive Psychology
for teachers.***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Serafine, M. L.(1988). ***Music as cognition: the development of thought
in soun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Sloboda, J. A.(1985). ***The musical mind: the cognitive psychology of
music.*** Oxford: Claredon Press.

Sloboda, J. A.(1988). ***Generative Process in Music: the psychology of
performance, improvisation, and composition.*** Oxford: Claredon
Press.